

● 외환리포트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6.20원 하락한 1,385.20원에 마감

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6.20원 하락한 1,385.20원에 마감했다.
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1.40원 하락한 1,390.00원에 개장했다. 미국 고용 지표 부진에 급락 출발한 환율은 네고 물량 출회에 추가 하락했다. 다만, 저가 매수세에 하단은 지지되며, 1,385.2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 중 변동 폭은 7.7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7.10원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 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1390.00	1390.20	1381.00	1385.20	1384.90

전일 엔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950.68	952.92	935.36	941.37

전일 유로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1623.24	1625.20	1597.26	1602.62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2.05	-7.09	-14.66	-27.88
결제환율(수입)	-1.58	-6.01	-12.69	-24.4

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

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

*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 가능

금일 전망

금리인하 기대감에...1,38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35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85.20) 대비 0.15원 상승한 1,383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고용 지표 쇼크에 FedWatch의 9월 금리인하 확률은 94.4%까지 상승했다.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2.5회 인하 가능성은 제기했다. 아울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를 2번 이상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3회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. 한편 OPEC+가 9월부터 증산하기로 합의하며 국제유가는 1.54% 급락했다. 유가 하락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하며 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됐다.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달러인덱스는 98pt 중후반대에서 횡보하며, 98.75pt를 기록했다. 금일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확산

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뉴욕증시 반등에 따른 국내증시 외인 매수세 및 수출업체 추격 매도 등은 원화 강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, 단기간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등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77.40 ~ 1388.40 원
체크포인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829.52 억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15원 ↑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美 다우지수 : 44173.64, +585.06p(+1.34%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4.24 억달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467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